2019 친환경 정크아트 프로젝트

1. 추진배경 및 목적

- 2015년, 유엔은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분야의 정책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
-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 만들어진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크기는 한국의 14배에 달하며 350만톤의 쓰레기가 바다에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해양생물, 관광, 어업 등에 미치는 피해로 연간 최소 130억 달러(약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17년 6월, G20 정상회담에서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채택. 전 세계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 2017년 12월, 유엔환경계획은 '제3차 유엔환경총회'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

2. 2018 친환경 정크아트 프로젝트

-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12개 주요 도시(마닐라, 방콕, 발리, 서울, 도쿄, 싱가포르, 뉴델리, 베이징, 사모아 등)를 중심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아트 프로젝트 진행
-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각 도시의 상징적인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전시
- 도시에 전시된 조형물은 세계 환경의 날 공식 홈페이지(www.worldenvironmentday.global)에 소개

프로젝트 in Seoul (5/27 - 12/31, 시민청/아트갤러리/새활용플라자 등)

Bangkok, 30 May 2018 – Trash meets art, as artists across Asia Pacific make a bold statement to the world this week to #BeatPlasticPollution. Twelve large-scale art installations created from plastic waste will be unveiled in a dozen cities across Asia Pacific between 2-5 June as part of UN Environment's World Environment Day celebrations. These temporary exhibits will bring attention to the plastic waste crisis as part of this year's World Environment Day theme of "Beat Plastic Pollution".

"The world is waking up to the fact that plastic pollution is one of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issues of our time, but that it's also something that we can solve," Erik Solheim, Head of UN Environment said. "This year's World Environment Day is therefore a call to action for all of us."

3. 2019 친환경 정크아트 프로젝트

- 플라스틱을 활용한 조형물을 제작해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의 심각성을 알림
- 플라스틱 조형물 해체 시 환경교육을 진행하여 폐기물 없는 캠페인 진행
-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에 대한 키 메시지를 전달하며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UN SDGs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지속가능한 소비생산)

UN SDGs란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경제•사회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 지구환경 문제 등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아젠다

1. 바닷속 해양동물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하여 바닷속 생태계를 구성(해파리, 해조류, 거북이 등)

2. 플라스틱 지구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하여 지구 형태의 조형물 제작(무게 98.2kg)

1) 환경 조형물(6월~12월)

-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kg으로 세계 1위
- 버려진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하여 바닷속 해양동물 또는 플라스틱 지구 제작
- 유동인구 많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전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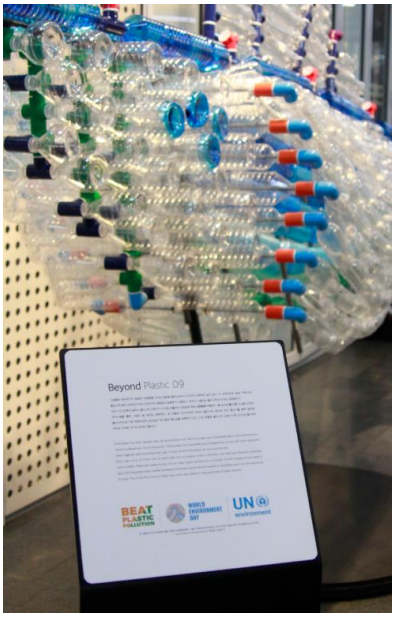
2) 환경 캠페인/교육(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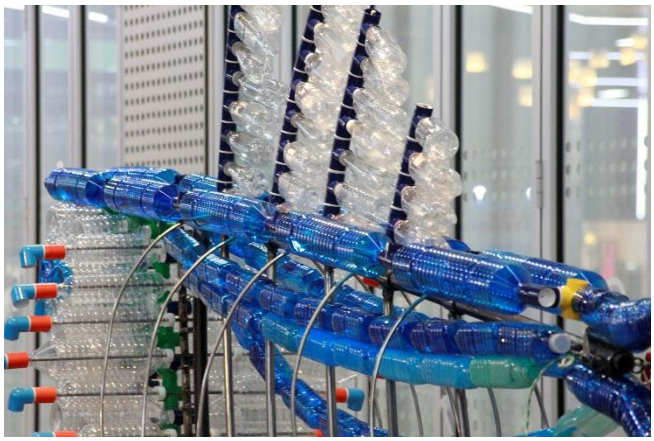
- 조형물 해체 시 발생하는 플라스틱 병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전개
- 환경 강연과 함께 플라스틱 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 프로젝트 진행
- 환경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 10대 수칙 가이드라인 개발

3) 미디어 홍보

- 캠페인 부스 운영을 통해 캠페인 홍보 전개
-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채널 홍보 및 아태지역 홈페이지에 소개

■ 시민청 전시(전시영상)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은 환경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지식 증진, 지구환경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UN에 설치된 환경 관련 종합 조정기관으로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소재하며 6개의 대륙에 각각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Korea Association for UN Environment)
1996년에 설립된 한국협회는 국제 환경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환경정책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및 일반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협회는 '세계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본부의 환경정책과 이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문의

김수현 02-723-3628 I shkim@unep.or.kr